

2018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①	2	⑤	3	②	4	③	5	③
6	④	7	①	8	④	9	④	10	⑤
11	②	12	③	13	②	14	③	15	③
16	④	17	④	18	①	19	⑤	20	①
21	②	22	⑤	23	⑤	24	④	25	②
26	⑤	27	④	28	①	29	①	30	③
31	②	32	①	33	①	34	③	35	②
36	③	37	②	38	①	39	⑤	40	③
41	⑤	42	⑤	43	②	44	④	45	④

해설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이 발표의 주요 내용은 인공 지능이 창작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다시 언급하며 이에 대해 청중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발표자가 발표를 시작할 때 발표 순서를 안내하지 않았다. ③ 발표자는 인공 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용어의 유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다. ④ 발표자는 발표 앞부분에서 인공 지능이 그런 그림을 제시하고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대답을 듣고 있으나, 그 대답을 바탕으로 자신이 발표한 내용을 점검하여 수정한 것은 아니다. ⑤ 발표자는 인공 지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인공 지능의 변화 과정이나 각 과정에 수반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 [출제의도] 듣기 전략을 파악한다.

‘학생 2’는 자신이 예전에 뉴스에서 본 것을 떠올리며, 이번 발표를 통해 인공 지능 기술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발표를 들으며 궁금증을 품은 것은 아니다. ‘학생 3’은 발표를 들으며 다른 나라의 인공 지능 창작물의 저작권과 관련된 논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궁금증을 지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며 정보를 수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은 발표에서 인공 지능이 예술 작품 창작이 가능하다고 한 점에 대해, 인공 지능이 만든 예술 작품이 창작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② ‘학생 2’는 발표를 들으며 자신이 예전에 뉴스로 접했던 인공 지능 기술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③ ‘학생 3’은 인공 지능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논란의 쟁점 세 가지를 요약하며 들었다. ④ ‘학생 1’은 인공 지능과 관련한 내용을 책에서 읽은 경험을, ‘학생 2’는 인공 지능 기술에 대한 내용을 뉴스에서 본 경험을 떠올리며 발표를 들었다.

3.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을 파악한다.

<자료 2>는 소설을 쓰기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 인물, 사건, 배경을 창조하는 능력과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B]에서는 인공 지능이 현재 이와 같은 수준의 소설을 창작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자료 2>는 인공 지능의 현재 창작 수준을 판단하는 데 활용되었다.

[오답풀이] ① <자료 1>은 인공 지능의 학습 및 결과물 창조에 대한 설명으로, [A]에서 인공 지능의 학

습에 대해 설명한 내용과 관련된다. 그러나 [A]에서 인공 지능의 정보 인식 단계를 제시하거나 각 단계 간의 차이점에 대해 언급하는 데 <자료 1>을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 ③ <자료 1>은 인공 지능의 학습 및 결과물 창조에 대한 설명이며 <자료 2>는 소설을 쓰기 위해 필요한 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B]에서 인공 지능이 창작 영역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 ④ <자료 3>은 현재 인간의 창작적 행위만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C]에서 저작물의 이용 목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자료 3>을 근거로 인간이 거짓으로 저작권을 내세울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고 볼 수 없다.

4. [출제의도] 토의 참여자의 발화 의도 및 내용을 이해한다.

‘학생 3’은 학생들에게 낯설면서도 학생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내용의 작품을 공연하자고 기획한 것이 관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획 의도를 제시한 후에 ‘기획한 대로 준비를 잘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관람할 거야.’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공연 기획 의도에 맞지 않는 준비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첫 번째 ‘학생 1’의 말에서 ‘학생 2’가 관객 감소를 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의 두 번째 ‘학생 1’의 말을 통해, 이와 같이 ‘학생 1’이 염려한 것이 공연 준비의 마무리가 잘 되지 않으면 관객 수가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학생 2’는 이번 공연 작품이 새로운 내용의 작품이므로, 이번 공연의 결과가 기존 공연과 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④ ‘학생 1’은 학교 신문에 공연을 소개하는 글을 실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홍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⑤ ‘학생 3’은 공연 작품이 의미 있는 것임을 알려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하고 있다. 이번 공연을 예년과 다르게 교과서 작품이 아닌 작품으로 기획한 의도는 많은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므로 두 번째 ‘학생 3’의 말은 공연을 예년과 다르게 기획한 의도를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토의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①에서는 즐거리를 모두 밝히면 몰입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 문제점을 지적한 후, 즐거리의 일부분만을 소개하며 학생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자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후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도 마찬가지이다. ㉠에서는 기본 정보를 글의 마지막에 제시하면 그 정보들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후, 공연 일시와 장소를 글의 첫머리에 제시하자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6. [출제의도] 글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을 파악한다.

(나)에서는 ‘세대 갈등’, ‘학교 폭력’, ‘독거노인 문제’ 등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루자는 ‘학생 1’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글에서는 작품에 반영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초래한 원인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이 공연 정보를 안내한 후에 기획 의도를 밝히자고 하고 있다. (나)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1문단에서 공연 정보를 안내하는 내용 뒤에 기획 의도를 제시하였는데 그 사이에 기존 공연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② ‘학생 2’가 주인공을 소개하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제시하자고 말하였다. (나)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2문단에서 주인공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공연

작품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신·구세대가 함께 찾을 수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작품임을 밝히고 있다. 즉 주인공 소개를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제시하되, 노인과 남학생의 만남이 의미하는 바를 밝힌 것이다. ⑤ ‘학생 1’이 글의 끝부분에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자고 하고 있다. 4문단에서 이를 반영하여 학생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7. [출제의도]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표현을 한다.

표제와 부제를 정하기 위해 나는 대화에서 ‘학생 1’은 글에서 줄거리로 제시된 주요 사건을 압축적으로 표현하자고 하고 있으며, ‘학생 2’는 글에서 제시한 작품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하자고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3’은 그런 내용들을 비유적인 표현 방법으로 표현하자고 하고 있다. 표제인 ‘사회의 그늘에 있던 주인공들의 만남과 그늘 탈출하기’에는 ‘그늘’이라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주인공들의 만남’과 무거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사라는 주요 사건이 압축적으로 나타나 있다. ‘신·구세대가 함께 찾을 수 있는 미래의 희망을 보여 주다’라고 부제를 정해 글에서 제시한 작품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8.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을 파악한다.

‘학생의 초고’에서 도로의 통행금지과 관련된 땅 주인과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에 대해 개인의 권리와 다수의 권리의 대립으로 발생한 갈등이라고 하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땅 주인과 마을 사람들 간의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으므로 ㉠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 주인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막아서 갈등이 발생했다고 하였으므로 ㉠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도로에 대해 자신의 사유 재산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통행을 막았다는 땅 주인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막아서 생긴 불편함과 피해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지방 자치 단체가 중재자로서 조율해야 한다는 역할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고쳐쓰기 전략을 파악한다.

‘학생의 초고’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도로의 통행금지로 마을 사람들이 입는 피해 중에서도 경제적 손실에 대해 제시하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고쳐 쓴 마지막 문단’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 정신적 피해 등을 덧붙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경제적 측면 외의 다른 측면에서 마을 사람들이 입는 피해를 추가하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고쳐 쓴 마지막 문단’은 갈등 양상이 모호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지막 문단을 고쳐 쓴 것은 아니다. ② ‘학생의 초고’의 마지막 문단에서 문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학생의 초고’ 마지막 문단에는 마을 사람들이 겪는 경제적 피해에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⑤ ‘학생의 초고’ 마지막 문단에서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고쳐 쓴 마지막 문단’에서 방안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긍정적 결과를 추가하지 않았다.

10. [출제의도] 비판적인 관점에서 글을 쓴다.

[A]에는 사익과 공익의 갈등이 있을 때 공익을 우선시하여 개인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관점이 담겨 있다. 그 반면 <보기>에는 피해가 법적으로 증명되

지 않으면 공익을 명목으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보기>를 바탕으로 [A]를 비판할 경우, 땅 주인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규제하면 안 되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야 한다.

[오답풀이] ① 땅 주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므로 <보기>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주장이므로 <보기>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③ 땅 주인과 마을 주민 간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보기>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땅 주인이 공익을 우선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보기>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11. [출제의도]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한다.

㉞에서 축약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㉞에서 받침 ‘ㅎ’과 ‘ㄱ’, ‘ㄷ’, ‘ㅈ’이 결합하여 축약이 일어나 [ㅋ], [ㅌ], [ㅊ]로 발음된다. ③ ㉞에서 ‘놓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나 [놓는 → 논는]으로 발음된다. ‘쌓네’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나 [쌓네 → 싹네]로 발음된다. ④ ㉞에서 ‘않는’과 ‘많네’는 ‘ㅎ’이 탈락하여 [안는], [만네]로 발음된다. ⑤ ㉞에서 ‘낳은’, ‘놓아’는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은’과 ‘-아’가 올 때 ‘ㅎ’이 탈락하여 [나은], [노아]로 발음된다. 그리고 ‘쌓이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이-’ 앞에서 ‘ㅎ’이 탈락하여 [싸이다]로 발음된다.

12. [출제의도] 파생어의 특징을 파악한다.

‘넓다’는 형용사이고, ‘넓히다’는 동사이므로 품사가 달라지고, ‘(방이) 넓다’에서 ‘(방을) 넓히다’로 문장 구조가 달라진다. ‘팔다’와 ‘팔리다’는 모두 동사이므로 품사가 달라지지 않고, ‘(책이) 팔다’에서 ‘(책이) 팔리다’로 문장 구조가 달라진다.

13. [출제의도] 띄어쓰기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동사와 본동사는 띄어 써야 하므로 ‘주고 갔다’로 띄어 써야 한다.

[오답풀이] ① 어미는 어간과 붙여 써야 하므로 적절하다. ③ 형용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므로 적절하다. ④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므로 적절하다. ⑤ 조사는 앞말과 붙여 써야 하므로 적절하다.

14.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높임 표현을 이해한다.

‘보습고’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이 사용되었다. ‘-습-’은 ‘世尊(세존)’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으므로, ‘龍王(용왕)’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5. [출제의도] 현대 국어의 높임 표현을 이해한다.

㉞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치야’를 높임으로써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㉞에서는 객체 높임을 나타내기 위한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해 ‘고모님’을 높이고 있다. ㉞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㉞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생각’을 높임으로써 ‘그분’을 높이고 있다. ‘㉞’에는 객체 높임이 나타나 있고, ‘㉞’, ‘㉞’, ‘㉞’에는 주체 높임이 나타나 있으므로, ‘학생 2’는 객체에 해당하는 인물을 높이는가의 여부를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16~21] (사회) 김일중, ‘법경제학 이론과 응용’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범죄 억제 수준은 추가되는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얻는 사회적 이익과 동일한 수준이 될 때 가장 효율적이다. 범죄 억제 기능을 갖고 있는 형사 제재는 사법 당국이 가진 정보가 불

완전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제재 강도, 제재 확률, 행위자 특성에 따라 동일한 억제 효과를 갖지만 비용은 더 줄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16.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이해한다.

위험 선호적 행위자에게는 제재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제재 확률을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인 억제이다. 왜냐하면 제재 강도를 더 낮추더라도 동일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어서 그에 따라 제재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범죄로 인한 순피해 비용과 범죄 억제 비용을 합한 것이 범죄의 사회적 총비용임을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위험 선호적 행위자는 작은 형량을 더 큰 확률로 받는 것보다 큰 형량을 더 작은 확률로 받는 것을 선호한다. 제재라는 위험에 대해 위험 중립적 행위자보다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③ 범죄 억제 수준을 한 단위 더 늘리기 위해 추가되는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얻는 사회적 이익과 같아질 때까지 범죄 억제 수준을 계속 높여 나가야 효율적이다. 이 수준을 초과하여 범죄를 억제하면 비효율적이다. ⑤ 제재 확률을 40%에서 10%로 줄임으로써 적발, 체포 비용이 절감되므로 후자가 더 효율적인 억제이다.

1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한다.

사법 당국이 B 부류의 행위와 C 부류의 행위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적 기대 제재는 4보다 커질 수 없다. 최대 기대 제재로 제재하더라도 C 부류의 행위를 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4가 최적 기대 제재가 된다.

[오답풀이] ① A 부류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므로 제재하지 않을 것이다. ② 최대 기대 제재는 5이므로 B 부류의 행위는 충분히 억제될 수 있다. ③ 기대 제재 수준이 기대 이익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당 행위는 억제된다. ⑤ 최적 기대 제재는 4 아니면 0이므로 최대 기대 제재를 통해 범죄를 억제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18. [출제의도] 핵심 제재에 대해 이해한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모두 처벌한다고 해서 최적 억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형벌을 무겁게 하는 것만이 범죄를 억제하는 데 능사가 아니다.

1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범죄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범죄 억제 비용의 최적화가 이루어지므로 그래프에서 사회적 총비용 곡선의 최저점의 범죄 수준인 Z_2 , 이 수준으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드는 비용인 Y_2 에서 범죄 억제 비용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

[오답풀이] ① $\Delta\Delta$ 사회가 최적 범죄 억제 비용을 투입했을 때의 범죄 수준은 Z_2 이다. ② $\Delta\Delta$ 사회가 고려하는 형사 제재 정책의 목표는 Z_1 이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죄 억제 비용은 Y_3 이다. ③ $\Delta\Delta$ 사회가 고려하는 형사 제재 정책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그때의 사회적 총비용은 최적 범죄 억제 비용보다 크다. ④ $\Delta\Delta$ 사회가 범죄 수준을 Z_1 보다 더 억제시키면 범죄 피해 비용이 줄어들지만 사회적 총비용은 늘어난다.

2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한다.

기대 제재가 4인 경우는 기대 제재가 5인 경우와 범죄 억제 효과가 동일하다. B 부류는 억제하지만 C 부류는 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대 제재가 4인 경우와 기대 제재가 5인 경우의 비용을 비교하면 기대 제재가 4인 경우가 비용이 더 작을 것이다. 따라서 최적 기대 제재는 4이다.

21.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한다.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함.’의 사전적 의미를 지닌 단어는 ‘실천’이다. ㉞ ‘설계’의 사전적 의미는 ‘계획을 세움. 또는 그 계획’이다.

[22~25] (고전 소설) 작자 미상, 용문전

이 작품은 「소대성전」의 속편으로 창작된 작자 미상의 고전 소설이다. 이 작품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절대적 규범이 택군지현(擇君之賢)의 상대적 규범에 의하여 부정된다는 내용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절대적 가치였던 충이 상대적 가치로 전환된 창작 당시의 사회적 양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이 작품에는 용문의 아버지가 물려준 결핍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영웅 소설에 흔히 나타나는 영웅으로서의 시련이나, 결연 과정에서의 혼사 장애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22.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물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용훈과 관 씨의 대화를 통해 용훈 부부가 후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대화를 통해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고 있음은 ‘용문의 지략과 기량이 천지간 영웅 준결이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눈은 방울 같고 몸이 불빛 같더니’, ‘천지가 무너지는 듯하며’와 같이 적토마의 특징을 비유를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석함’을 받고 한 용문의 생각을 통해 ‘석함’이 용문의 장애에 대해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이해한다.

신장은 홍해국 태자를 베라는 옥황상제의 명을 수행하였으나, 옥황상제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며 자신을 내쳤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장이 의도적으로 옥황상제의 명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용훈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용문의 집안이 대대로 명가임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대대로 호국 사람인데’라는 용문의 생각을 통해 용문의 집안이 대대로 호국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용훈은 ‘본래 벼슬길에 뜻이 없어 강호에 놀기와 동산에 발 같기를 일삼으니’라고 언급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용문이 선생 말씀을 낱알이~ 칭찬하더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용훈 부부가 ‘태항산 천축사에 올라가~ 반년이나 지냈다고 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에 사용된 서사적 장치를 파악한다.

용문이 적토마를 받고 기뻐하며 시험하는 장면은 제시되어 있지만 용문 자신이 천상계의 인물임을 스스로 깨닫고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태몽을 통해 천상계의 인물인 신장이 관 씨를 통해 용문으로 태어나게 됨을 알 수 있다. ② 갓 태어난 용문의 외양을 ‘용의 기상이요, 범의 머리며 곰의 등이요~ 앞니가 밖으로 한 치나 내밀었으니’로 묘사하며 용문의 영웅성을 암시하고 있다. ③ 연화 도사를 등장시켜 용문에게 천문 지리, 육도삼략, 황석공의 병법을 가르쳐 용문이 영웅적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벽도관을 쓴 동자가 옥황상제의 명으로 전장 기계를 전달하는 것을 통해 용문이 하늘이 돕는 영웅적 존재임을 알 수 있다.

25.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㉞에서 만난 사람은 자신의 아이를 죽인 말을 잡아 달라고 말하며 용문의 관심을 끈 후, 자신은 용문에게 적토마를 주기 위해 찾아왔음을 말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연화 도사가 용훈을 찾아와 용문을 자

신에게 맡기라고 하고 이를 용훈이 허락하자 연화 도사는 용문을 데리고 ㉠으로 들어갔다. ㉢ 용문이 ㉡에서 만난 동자는 석함을 전달하고 있을 뿐 용문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지 않다. ㉣ 용문은 호인인 자신을 '명국 대사마 장군 용문'이라고 한 석함의 글을 보고 자신의 장래에 대해 궁금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명나라를 위해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 ㉠과 ㉡은 모두 현실의 공간이다.

[26~28] (현대 소설) 현기영, '순이 삼촌'

이 작품은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에 내려온 '나'가 '순이 삼촌'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친척 어른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30년 전에 있었던 마을의 비극적인 사건을 떠올리는 이야기이다. 당시의 사건으로 두 자식을 잃고 평생을 신경 쇠약과 환청에 시달려온 '순이 삼촌'의 사연을 통해 당시 제주도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을 조명하고 있다. 이 소설은 오랫동안 역사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었던 역사적 사건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는 첫걸음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6.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A]는 '그'에게 전해들은 '순이 삼촌'의 이야기를 서술자인 '나'가 전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B]는 '나'가 어린 시절 직접 경험한 사건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A]에는 과거 사건에 대한 추측의 진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물의 위선적인 면모 또한 드러나 있지 않다. ② [B]에는 유사한 성격을 지닌 현재와 과거의 사건이 병치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A]와 [B]에는 모두 감각적인 배경 묘사가 없을 뿐 아니라, 인물의 세밀한 심리 변화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④ [A]에는 공간의 병치가 없고, [B]에는 시간의 교차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여기에 사건의 원인도 밝혀져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7.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은 마을에서 있었던 참상이 '무분별한 사격'이라고 할 만큼 희생자의 수가 많았다는 '나'의 생각을 담고 있다. 운수가 좋아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들을 핑계 삼아 무차별 사격이 자행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은 읍방진 밖으로 끌려 간 사람들에게 무차별한 사격이 가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② ㉠은 화마에 휩싸여 이수라장이 된 마을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③ ㉡의 '고무신'은 운동장에서 끌려 나가 희생당한 사람들이 신던 것이므로, ㉡은 이들의 수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⑤ ㉡은 당시에 고모부가 마을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겪었던 사건을 고모부가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28.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전투사령부'의 '견벽청야' 명령은 당시 토벌군에게 실제로 내려진 명령이었으므로, 역사적 사건의 가해자들이 나중에 꾸며낸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② '길수 형'이 '순이 삼촌'에게 전해 들은 '그때'의 사건을 방 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순이 삼촌' 개인의 기억이 방 안에 모인 여러 사람과 공유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군인이나 순경'을 먼빛으로만 봐도 질겁하고 피하는 '순이 삼촌'의 모습은, 마을의 참상과 관련된 '순이 삼촌'의 강렬한 기억이 그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그건 옷대거리들이 책임을 모면해 보젠 둘러대는 핑계라 마썸.'이라는 말에는, 가해자들이 내세우는 논리에 대한 피해자로서의 비판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당시 토벌군이었던 '고모부'가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길수 형'이나 '나'와는 다른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은, '고모부'의 기억이 토벌군의 입장에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29~32] (기술) 한정원, 'Urea-SCR 시스템의 공간 속도와 Urea 분사 형태 변화가 NOx 저감 효율과 암모니아 슬립에 미치는 영향'

가솔린 엔진에 비해 디젤 엔진은 출력과 열효율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형 장비, 공장, 발전소 등에서 널리 이용된다. 그러나 디젤 엔진은 대기 오염 물질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규들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SCR 방식은 화학 반응을 통해 요소에서 암모니아를 생성하여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는 기술로, 입자상 물질을 저감하는 DPF 방식과 복합적으로 쓰인다. 선택적 촉매 환원법인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방식은 일산화 질소나 이산화 질소를 산소와 함께 암모니아와 반응시켜 물과 질소로 바꾸는 기술이다. 이 방식은 질소 산화물 저감 효율이 80~90%로 높고 연료 대비 5~6%의 요소수만이 소모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요소수 공급 장치를 추가적으로 설비해야 하고 암모니아가 배기가스와 함께 배출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2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한다.

6문단에서 아멜린이나 멜라민 등이 고착되는 문제와 암모니아 슬립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암모니아 슬립 현상으로 배출되는 암모니아가 아멜린이나 멜라민 등을 고착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④ 1문단에서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 일반적으로 이산화 탄소의 배출량이 적고 열효율이 높다고 하였다. ⑤ 4문단에서 이산화 질소는 일산화 질소와 함께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질소와 물로 바뀐다고 하였다.

3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는 DPF 장치이므로 입자상 물질을 저감한다. ㉠은 SCR 장치이므로 질소 산화물을 저감한다. ㉡를 거치게 되면서 입자상 물질은 저감되지 않기 때문에 ㉡에서 입자상 물질의 양은 ㉠과 다르지 않다.

[오답풀이] ① 배기가스 중의 입자상 물질은 DPF 장치를 거치면서 저감된다. ② 요소가 열분해와 가수분해되면 암모니아가 발생한다. ④ 일산화 질소는 암모니아와 함께 산소와 반응하여 질소와 물로 바뀐다. 따라서 ㉡를 통해 공급되는 공기 중의 산소가 있어야 한다. ⑤ 연소 온도가 높을 때 입자상 물질이 감소하는 대신 질소 산화물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3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비교하여 파악한다.

㉠ EGR 방식은 배기가스를 재순환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어 질소 산화물을 적게 발생하도록 한다. 배기가스가 엔진으로 재순환되어 연료와 함께 연소되는 과정에서 엔진에 불순물이 쌓일 수 있다. ㉢ SCR 방식은 배기가스 중 질소 산화물을 암모니아와 반응시켜 저감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는 과정이 엔진에서의 연소 과정과는 별도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EGR 방식은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재순환시켜 질소 산화물을 저감한다. ③ SCR 방식에서는 암모니아를 통해 질소 산화물을 저감한다. 암모니아는 폭발의 위험이 있고 자극적인 냄새를 풍겨 취급 시 주의를 요한다. ⑤ SCR 방식이 EGR 방식보다 높은 온도에서 연료를 연소시킨다.

3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추론한다.

공간 속도는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배기가스의 양을 촉매의 부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공급

되는 배기가스의 양이 많거나 촉매의 부피가 작으면 공간 속도가 빨라진다. 공간 속도가 빨라지면 배기가스가 장치 내를 빠르게 통과하여 체류 시간이 짧아진다.

[오답풀이] ③ SCR 장치 내부를 백금이나 바나듐을 이용하는 것은 반응 물질을 흡착시키기 위해서이다.

[33~37] (과학예술) 이한진, '투시 원근법'

이 글은 투시 원근법의 구현 원리와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에 대한 최적의 관람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설명하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자연적 원근법에서 탈피하여 투시 원근법을 통해 사물을 눈에 보이는 대로 정확히 재현하려 하였다. 이런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투시도의 구현 원리는 평면도와 상승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동일한 대상을 그릴 때의 장면을 위에서 내려다 본 평면도와 옆에서 본 상승도를 종합하면 그 대상이 투시도에 어떻게 그려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그린 그림을 화가가 본 것과 유사하게 관람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관람 거리를 파악해야 한다. 투시 원근법으로 직사각형을 그린 그림이라면, 실제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C)와 세로 길이(D), 직사각형의 소실점(V),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연장한 선과 지평선이 만나는 점(V')을 알면 최적의 관람 거리를 구할 수 있다.

33. [출제의도] 글에 쓰인 설명 방식을 파악한다.

글에는 투시 원근법이 자연적 원근법을 탈피하기 위해서 활용되었음이 나오고 있다. 또 이 글에는 투시 원근법이 후대에 영향을 미쳤음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투시 원근법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 통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② 철로를 그린 투시도를 예로 들어 투시 원근법의 구현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③ 프란체스카가 투시 원근법의 한계를 지적했음을 밝히고 있다. ④ 시선, 사영, 소실점 등 투시 원근법과 관련된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⑤ 투시 원근법이 자연적 원근법과 달리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활용하여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했다고 밝히고 있다.

34.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상승도]에서 받침목들은 화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받침목 양 끝점의 사영이 중앙선과 가까워진다.

[오답풀이] ① [평면도]에서 화면과 가장 가까이 있는 받침목의 양 끝점 A와 B는 각각 화면에 A'와 B'로 표시된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받침목의 양 끝점의 사영은 A'와 B'보다 중앙선과 가깝다. 이처럼 받침목이 화면에서 멀어질 때 받침목의 끝점을 잇는 시선과 중앙선 사이의 각은 작아진다. ② [상승도]에서 한 개의 받침목의 양 끝점은 화면에서 동일한 점으로 표시된다. ④, ⑤ [투시도]에서 멀리 보이는 받침목은 그 상이 평면도의 중앙선과 상승도의 중앙선이 만나는 지점, 즉 소실점에 가까워진다.

35. [출제의도] 제시된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C: D = c: d'가 성립하므로 실제 타일이 정사각형이라면 c=d가 된다. 이 그림의 V는 그림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V'는 그림의 세로 테두리의 중앙에 위치하므로 c, 즉 V와 V' 사이의 거리는 90cm이다. 그러므로 이 그림의 최적의 관람 거리는 90cm이다.

[오답풀이] ① 실제 장면을 보고 있는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가 최적의 관람 거리이다. 최적의 관람 거리가 120cm라면 'C: D = c: d'가 성립하므로 화가가 보고 그린 실제 타일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비는 90:120이 된다. 실제 타일의 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보다 더 긴 것이다. ③ V는 그림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또한 그림 속 각 타일의 대각선을 연장하여 지평선과 만나도록 하면 모두 같은 점 V'에서 만난다. 그러므로 어느 위치에 있는 타일이든 V와 V' 사이의 거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④ 'C: D = c: d'가 성립한

다고 하였으므로, 가로 길이 100cm, 세로 길이 50cm인 직사각형의 타일을 보고 그린 그림의 최적의 관람 거리는 $90 \times 50 / 100$ 로, 45cm가 된다. ⑤ 그림 속 타일의 대각선을 연장한 선과 지평선이 만나는 점이 V이다. 실제 타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림의 V는 달라지지 않는다.

36. [출제의도] 구절의 세부적 의미를 이해한다.

화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시선을 중앙선이라고 하고 이 선이 철로와 평행이라고 하였으므로, ㉔은 철로가 화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뻗어 있다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상자의 각 점의 사영들을 모아 생기는 상이 화가의 눈에 비친 상자의 상이라고 하였으므로 ㉔은 사물의 각 점의 사영들을 모아서 그린다는 의미이다. ② 소실점의 개수에 따라 투시 원근법을 나누므로, ㉔의 한 점 투시 원근법은 소실점을 하나로 설정하여 그린 것이다. ④ 평면도에서 받침목이 화면에 멀어질수록 상의 길이가 작아지면서 화면의 상들은 중앙선과 화면이 만나는 점에 가까워진다. ⑤ 화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선이 중앙선이므로 중앙선이 바닥면과 평행하다는 것은 바닥면이 화면과 수직이 된다는 것이다.

37.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①은 '근거를 들.'의 의미이고, '독립 선언문을 기초한'의 '기초'는 '글의 초안을 잡음.'의 의미이다.

[오답풀이] ① ㉔은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씀.'의 의미로, '신기술을 적용하여'의 '적용'과 같은 의미이다. ③ ㉔은 '완전히 다 이룸.'의 의미로, '보고서를 완성하여'의 '완성'과 같은 의미이다. ④ ㉔은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함.'의 의미로, '간격을 유지해야'의 '유지'와 같은 의미이다. ⑤ ㉔은 '다시 나타냄.'의 의미로, '마을을 재현한'의 '재현'과 같은 의미이다.

[38~42] (고전시가, 수필 복합) (가) 정도전, '신도가' / (나) 이신의, '사우가' / (다) 현진진, '불국사 기행' (가) 정도전, '신도가'

이 작품은 조선의 개국공신이며 한양 건설의 책임자인 정도전이 한양으로의 천도를 찬양하기 위해 지은 약장이다. 조선 전기에 창작된 약장들은 대부분 새로운 왕조를 세운 임금의 성덕을 기리고, 그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새로운 문물제도를 과시하거나 새로 만든 도성을 찬양하는 등 송축가로서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 이 작품은 새롭게 건설된 한양의 빼어난 모습을 찬양하고, 태조의 성덕을 기리며 풍수지리상 길지에 터를 잡은 태조가 만수무강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나) 이신의, '사우가'
이 작품은 작가가 광해군의 폭정에 대해 상소하였다가 함경북도 회령에 유배되었을 때 창작한 연시조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당대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보신을 위해 자신의 지조를 꺾는 속된 선비들과는 달리 시류에 영합하지 않겠다는 지조를 보여 주고 있다.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의 '사우'는 엄혹한 자연 환경 속에서도 불변성을 지키는 대상으로, 울곧은 선비들의 고고한 기상을 상징하는 식물로 볼 수 있다. 작가는 '사우'를 벗으로 인식하며 그들의 긍정적 속성과 그들에게 내재된 가치관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으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다) 현진진, '불국사 기행'
이 작품은 글쓴이가 1929년 경주의 고적(古蹟) 명소를 둘러보고 느낀 소감을 쓴 <고도순례 경주>에 들어있는 수필이다. 글쓴이는 일제 치하 우리 민족이 일본의 기만적 통치에 민족적 정체성과 자부심을 잃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글쓴이는 우리 문화유산에서 민족사를 유지한 원동력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식민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민족정신을 일깨

우려 애썼다. 지문에서는 주로 석굴암의 뛰어난 건축술과 예술미에 대한 감동을 드러내고 있는데, 비유와 주관적 인식에 바탕을 둔 화려체의 서술 방식이 내용과 잘 어우러지고 있다.

38.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새로운 도성인 한양과 개국 군주인 태조에 대해, (나)는 '사우(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에 대해, (다)는 문화유산인 석굴암에 대해 예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풀이] ② 공간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가)이다. ③ (가)와 (나)에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에만 새로운 문물과 제도에 대한 위용이 나타나고 있다. ⑤ (나)는 시련을 상징하는 시어를 제시한 후 이에 굴하지 않는 '사우'의 속성과 모습 등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시련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다)는 관련이 없다.

39. [출제의도] 시어와 구절의 의미를 이해한다.

'청빈한 삶'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 가난하게 지내는 삶을 의미하는데, (나)의 '청풍을 반겨'와 (다)의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언급하여'는 이와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① '늠연한 줄 반가운데'는 '술'이 위엄이 있고 당당해 보임이 반갑다는 의미로 자연물에 대한 감탄을, '정말 찬란하다 활짝에 없다'는 석굴암 천장 장치의 예술미에 대한 감탄을 표현한 것이다. ② '여위는 줄 전혀 없다'는 '술'의 불변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은 석굴암 앞문에 변화가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다. ③ '그윽한 향기'는 매화에 대한, '어여쁜 파란 산들'은 석굴암 밖의 경치에 대한 호감을 드러낸 것이다. ④ 대나무를 보려고 창을 연 후 '대숲이 푸르러세라'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화자가 원하는 사물을 본 상황이다. 동해의 일출 광경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그런 선언이 있을 턱이 없다'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글쓴이가 원하는 광경을 보지 못한 상황이다.

4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기국성왕이 성덕을 니르어샀다'는 개국성왕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의미로, 조선의 개국을 송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구절에 임금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는 없다.

[오답풀이] ① '네는 양주! 쏘올하여'는 한양의 옛 지명이 양주임을 밝히는 것이고, '당금쟁'은 지금의 경치라는 의미이므로 한양의 현재 풍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네'는 '이 과거의 표지, '당금'이 현재의 표지가 된다.

41.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 방식을 이해한다.

(나)의 <제1수>의 '풍상'과 '봄빛', <제2수>의 '춘광'과 '엄상', <제3수>의 '눈', <제4수>의 '백설'이 계절감을 활용한 시어이다. (나)는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시련의 계절을 맞아 의연함을 보이는 '사우'의 모습을 통해 '사우'에 내재된 긍정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동작을 묘사한 것은 <제4수>이다. ② <제2수>, <제3수>에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교차하여 '사우'의 모습을 부각한 부분은 없다. ③ 색채 대비는 <제4수>에만 나타나며, 이는 '사우'의 장점을 제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 ④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42.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한다.

(다)에서 글쓴이는 석굴암을 둘러보고 밖으로 나와 주위의 절경을 '선경'으로, 동해의 일출 광경을 '선경' 중에서도 '선경'으로 비유하였다. 하지만 동해의 일출

광경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자신을 '속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다)의 글쓴이는 자신이 신선이 된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인왕과 사천왕이 흠뻑 눈과 부르겔은 팔뚝으로 나를 위협한다. 어깨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배는 훌쩍하고, 사지는 울퉁불퉁한 세찬 근육!'에서 생생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신품'이 감동을 하나의 단어로 집약한 것이다.

[43~45] (현대시) (가) 송수권, '대역사' / (나) 고재중,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가) 송수권, '대역사'

이 시는 서해 갯벌을 배경으로 모든 생명체를 응시했을 때의 경이로운 순간을 포착한 작품이다. 대자연의 풍경 속에서 생명과 사물의 교감이 감각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서해, 내소사, 선운사, 채석강, 질마재 등의 천지 만물이 하나로 통합되어 자연과 인간이 서로 화답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나) 고재중,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이 시는 겨울 감나무를 관찰하고 생명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감동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1연은 겨울 감나무 가지를 보고 서로 다치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 자기 분수만큼 살아가는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2연에서는 여러 형태의 가지들이 한 등치에서 뻗어 나간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3연에서는 등치 밑뿌리가 땅속 깊이 닿아서 물을 빨아올려 꼭대기 끝까지 물을 공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겨울나무가 보여 주는 이러한 생명력을 발견한 화자는 4연에서 감동을 느낌과 동시에 생명의 원리에 주목하지 않는 인간 삶에 대한 성찰적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43. [출제의도]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한다.

(가)에서는 '-는다', '-니다' 등의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저녁 무렵 '서해 뺨'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장면의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나)에서도 '-니다'를 사용하여 겨울 감나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으나 화자의 태도 변화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③ (가)는 '나'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있으나 반복적으로 대상을 부른다고 보기 어렵고, (나)에는 대상을 부르는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에서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비판적 의도를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⑤ (나)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종결했다고 보기 어렵다.

4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는 (가)와 (나)의 작품에서 자연이 형상화되는 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의 1연에서 '갇은 바람 속'의 겨울 나뭇가지가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칼랑한 허공을 끌어안'는다는 표현은, '모두 다 서로를 휘방 놓는 법이 없이', '제 감냥껏 한세상을 흔들거린다.'와 연결하여 자신의 분수에 맞게 세상의 순리대로 나뭇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무의 생명력이 다른 자연물에게 전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5.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땅속'은 겨울나무가 생명을 이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물과 양분을 제공하는 터전이라는 점에서 생명력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둠의 이미지를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나무의 '당참'과 대비된다 고도 보기 어렵다.